

일 주 문

제12회 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동충 설법연구원장 스님은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종로구 수송동 열린 선원에서 '제12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중앙시장서 연탄·팔죽 나눔
자운 천태종 제천 삼천사 주지 스님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제천중앙시장 입대에서 '연탄 1만장 및 동지팔죽 나누기'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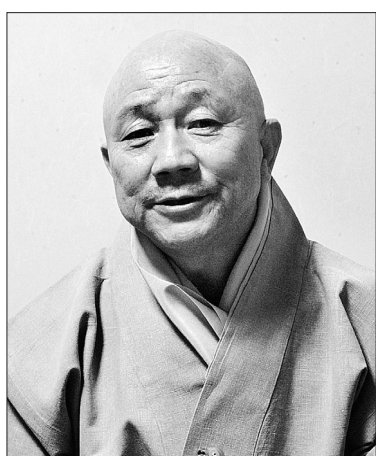
제13차 사회봉사자의날 행사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12일 '제13차 사회봉사자의날'을 맞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및 식판세척 봉사를 실시한다.

제12차 집중세미나
고영섭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은 12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카디타 한국지부 송년의밤
조은수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한국지부장은 12월 18일 오후 5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송년의 밤 및 바자회'를 개최한다.

“장학사업 통해 인재 양성 도모”

해인사 승가대 총동문화 신임회장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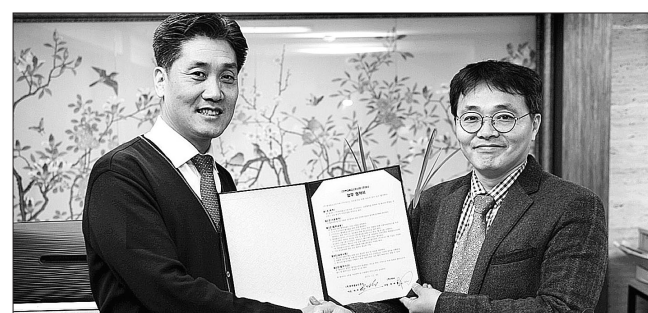
현재 56기까지 1000여 명 회원
동문 친목·장학 사업 지속 추진
“타의 모범되는 동문화 만들 것”

“해인사 승가대학은 해인사뿐만 아니라 타문중 스님들도 수학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졸업해 불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여는 승가대학보다 많습니다. 그런 만큼 동문 스님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다른 것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화도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화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동명 스님(서울 전등사 주지, 사진)은 11월 30일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동명 스님은 지난 11월 23일 해인사 관음전에 열린 총동문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신임 회장으로서 동문 간 화합을 강조했다.
“동문 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동문 스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선후배 스님들을 잘 모시고 동문화장 소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도반 스님, 선후배 스님

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화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은 (재)해인동문장학회가 재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맡고 있다. 올해도 2015년 장학금 49명에게 4,400만 원과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연구비로 500만 원 총 4,9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

기도 했다.
“선배 스님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학들을 잘 양성에 불교계의 입문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해인동문장학회를 활성화해 후배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동명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화가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자로서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계종의 많은 문제들은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한 사람이더라도 모범을 보인다면 같은 풍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화 정기총회에서는 18대 회장 선출이외에도 2015년 결산·2016년 예산 승인의 건, 제18대 임원 선출의 건, 동문화 활성화 방안의 건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날 동문들은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정기적인 성지순례와 기수별 모임 등을 통해 동문화 의의를 증진하고 활성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다나 서비스 MOU



현대불교신문사와 (주)다나는 11월 30일 대의 홍보 및 웹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나는 현대불교신문사 수익형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불교신문은 다나의 대의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주)다나는 지난 8월 15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교계 IT전문업체로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요사찰 홈페이지 제작·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절로', '법화경', '법화'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환 기자

생명나눔 광주본부, 연탄·김장나눔



생명나눔 광주본부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며 뜨거운 정을 선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행복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K텔레콤, 원효사, 공익진법차의 후원으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체 12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광주 북구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동구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광 소외계층 독거노인, 백혈병 소아암 환아가족 등 4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사> BBS불교방송 인사

△승진 박호창 포교문화국 문화사업부장 △전보 안훈 경영기획실 마케팅부장, 박치민 부산지방사 교계협력부장 겸직 △장수연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겸 뉴미디어 T/F팀장

<입적>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 12월 1일

12월 3일 청련사서 태고종단葬으로 영결식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당(白牛堂) 재수(再秀)스님이 12월 1일 오전 입적했다. 법랍 57세, 세수 73세. 백우 스님은 1955년 안정사(현 청련사)서 석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58년 덕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5년 국묵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청련사 주지에 취임했고 201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총회의원, 조사부장, 감찰부장, 사정원 부원장, 총무원 총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양주시 개명산 자락에 청련사를 이전 창건 및 중창 대작불사를 했으며 가람수호와 불법홍포, 도제양성에 앞장서고 대종스님들과 수행정진에 매진해 왔다. 백우 스님은 출가사문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큰 원을 세우 본래면목 찾는 화두 타파와 염불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평소 강조했다. 백우 스님의 영결식은 태고종 종단장(宗)으로 12월 3일 청련사서 봉행됐다. (031)8336-0827 김주일 기자

본지,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11월 30일, 제23회 전통문화공연장서 시상식



본지 신성민 차장(오른쪽)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에서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본지 기획연재 '광복 70년, 불교 70년'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개최하고, 뉴미디어·신문·방송·특별상·불교언론인상·불교언론문화상 대상 등 각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올해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맞도록 시상내역을 재편하고 뉴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불교언론문화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상은 BTN개국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SBS 물은 생명이야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과 BBS뉴스 기획보도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가 된다'가 특별상을, 강상구 KBS경영위원이 불교언론인상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암사 가람 수호·발전에 총력”

태고종 총림 선암사, 30세 주지 호명 스님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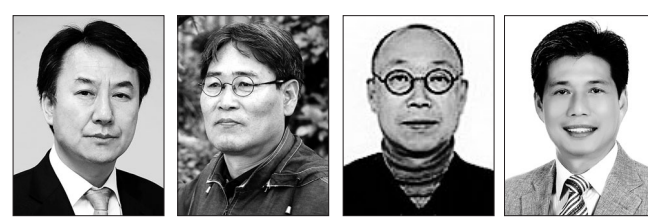


선암사는 지난 11월 30일 적묵당서 전산총회를 열고 제 30세 주지 선거를 실시했다. 사진 오른쪽이 당선 소감을 밝히는 호명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총림 선암사 제 30세 주지에 호명스님(서울 염불사 주지)이 선출됐다. 선암사는 지난 11월 30일 적묵당서 전산총회를 열고 제 30세 주지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분한신고를 마친 재적승 유권자 154명 중 113명이 투표에 참가, 호명스님 98표, 명성스님 14표, 무효 1표로 호명스님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호명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9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잡고 들어와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곳이 바로 선암사”라며 “선암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진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64년 선암사서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사업부장, 종무조정실장과 종단시간행위위원회 위원, 제 11대 중앙총회의원, 총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특별사면복권심사위원회의 위원, 서울북부교구총무원장,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암사수호대책위원회며 총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창원시불교聯, 시민불교문화상 선정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2015년 '제25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인문상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문학상 성선경 경남문인협회 이사 △예술상 김종원 한국문자문명연구원 회장 △환경상 박종준 신대양 (주)대표이사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2015년 '제25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인문상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문학상 성선경 경남문인협회 이사 △예술상 김종원 한국문자문명연구원 회장 △환경상 박종준 신대양 (주)대표이사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세계에서 짐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2 학교소개
3 지원자격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5 문의처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